

## 남녀 중학생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애착의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차이\*

김 미 주

방 회 정<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 애착과 암묵적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데 있어 어떠한 상대적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의 중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친밀 관계 경험 질문지(ECR), 암묵적 연합 검사(IAT), 삶의 만족도 척도(SWLS), 정적정서 및 부정적정서 척도(PANAS)를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묵적 애착, 명시적 애착,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에 있어서의 성차는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에서만 나타났다. 둘째, 암묵적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암묵적 연합 검사의 단어들은 범주에 따라 분류 가능하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타인보다는 자신과 어머니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암묵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명시적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성차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반면 암묵적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명시적 애착 변인들은 남녀 모두에게서 주관적 안녕감의 세 가지 하위 변인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 반면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에 대한 암묵적 애착 변인의 설명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애착, 암묵적 연합 검사(IAT), 주관적 안녕감, 중학생

\* 본 논문은 김미주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방회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hjbang@ewha.ac.kr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인 변화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성숙해지고, 인지적으로는 비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또한 여러 영역에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들과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이 시기 청소년들의 안녕감 수준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은 사춘기의 시작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덜 안정적이며(김예진, 2012), 우울증 유병율도 중학생(22.1%)이 고등학생(14.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유기영, 신영규 등, 2000), 중학생들의 안녕감, 그 중에서도 주관적 관점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이 이 시기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주관적 안녕감은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는 큰 관련이 없으나(Gilman & Huebner, 1997, 2003), 부모나 또래와의 애착 관계와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Gilman & Huebner, 2006; Nickerson & Nagle, 2004).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에서 또래로 애착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또래 애착이 안녕감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Richards, McGee et al., 2010),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청소년의 여러 발달 영역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또래 관계, 안녕감(Armsden & Greenberg, 1987), 심리적 적응(McCormick & Kennedy, 1994) 등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며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Paterson, Field, & Pryor, 1994; Raja, McGee, & Stanton, 1992).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정적정서는 더 적게, 부정적정서는 더 많이 보고하였고(유경자, 2005),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비행을 가장 잘 억제하는 요인이었다(박은하, 권세원, 2010).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서의 성차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애착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또래 관계에 있어 더 친밀감을 느끼고(Buhrmester, 1990), 남학생들은 아버지, 여학생들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기도 하지만(Rosenthal & Kobak, 2010),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Allen, McElhane, Kuperminc, & Jodl, 2004; Hazan & Shaver, 1994) 관련성의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편,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들 사이에서는 성차가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였고(차경호, 1999), 정서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정적정서를 보고하고 있다(Ayyash-Abdo & Alamuddin, 2007). 하지만 삶의 만족도나 정서에 있어 유의한 성차가 없다는 연구들(고영남, 2008; Heubner & Dew, 1996)도 있어 결과가 비일관적이다. 따라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봄에

있어 성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은 초기 청소년들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관적 안녕감을 알아본 연구들은 단일 척도로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신형자, 2010; Ren, Wang et al., 2011) 인지 및 정서 하위요소 모두를 측정할 연구가 드물어, 주관적 안녕감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애착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첫째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애착 질문지들로만 청소년의 애착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유교적 효 사상이 아직까지 중시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가지는 태도나 감정을 자기보고식의 명시적 질문지로 측정할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반응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신희천, 한소영, 양육석, 2009).

둘째, 애착이 내적 실행 모델에 의해 작동되는 기제라는 점에서도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으로는 애착의 모든 측면을 알아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내적 실행 모델은 자동성의 수준에 따라 의식적인 것에서 무의식적인 것까지 나뉘게 되지만(Spangler & Zimmerman, 1999), 대부분의 애착 질문지는 의식적 수준에서의 애착만을 측정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의식적 수준의 실행 모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밖에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나(Furman & Wehner, 1994; Main, Kaplan, & Cassidy, 1985), AAI는 숙련된 면접자가 실행하고 코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암묵적 연합 검사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들의 명시적, 암묵적 수준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애착이 일생에 걸쳐 중요하다고 보고되고는 있지만 영아기, 초기 아동기 및 성인기의 애착 연구에 비해 중기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의 애착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때, 암묵적 수준에서의 애착과 명시적 수준에서의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른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암묵적 연합 검사와 명시적 애착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 수준의 애착 내적 실행 모델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태도나 기억과는 다른 명시적·의식적 수준의 태도와 기억은 아동기를 걸쳐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점에서도(Murphy, McKone, & Slee, 2003), 명시적 애착과 암묵적 애착을 나누어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성차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로, 선과 악, 유쾌함과 불쾌함과 같은 가치를 특정 대상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Banaji, 2001). 태도는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라는 두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대상에 대하여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Wilson, Lindsey, & Schooler, 2000). 명시적 태도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거나 공개적으로 진술된 것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의식적 자각에 접근 가능한 태도이다. 반면 암묵적 태도는 자기 성찰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혹은 부정확하게만 알 수 있는 과거 경험에 대한 자취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며, 때때로 자신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는 태도이다(Banaji, 2001). 즉, 암묵적 태도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의식 너머에 존재하며, 의식적 조절을 할 수 없는 평가이자 선호라고 볼 수 있다(Nosek & Banaji, 2001). 따라서 명시적 태도를 기억으로부터 인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량과 동기가 필요하지만 암묵적 태도는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명시적 태도는 상대적으로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암묵적 태도는 천천히 바뀌거나 거의 바뀌지 않는다(Wilson et al., 2000).

#### 암묵적 연합 검사

명시적 태도는 응답자에게 어떠한 개념이나 대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음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암묵적 태도는 자신의 태도를 보고하는 능력이나 내성, 자기 성찰(introspection)에 의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명시적 태도와는 비교되는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개발했다. IAT는 자동적 연합 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더 강하게 연합된 쌍일수록 더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IAT는 자동적인 반응을 측정하므로, 자기보고 측정도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IAT는 두 가지의 표적 자극들을 대표하는 그림 혹은 단어들과 두 가지의 속성 자극 단어를 쌍을 지어 두 범주로 분류하는 검사이다(Greenwald et al., 1998). 이 때 어느 조건에서의 잠재 반응시간이 더 빠른지를 알아봄으로써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잠재 반응시간과 표준편차를 사용하면 IAT *D* 점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는 속성 자극과 표적 자극의 관련성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낸다. *D* 점수가 높을수록 연합 강도가 더 강하다고 해석한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 애착

##### 내적 실행 모델

Spangler와 Zimmermann(1999)에 따르면 애착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조직화된다. 신생아기부터 시작하여 만 1세경까지 완성되는 초기 애착 체계는, 생애 초기 애착 관계에 기초하여 발달하는 반사적 수준의 실행 모델이다. 이후에는 의식적 수준의 평가 및 인지적 과정 없이 작동하는 암묵적이고 절차적인 수준의 실행 모델이 조직화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능력의 발달과 함께 애착 대상과의 특정한 경험에 근거하여 명시적인 애착 모델이 발달하는데, 이는 초기 실행 모델과는 다르게 의식적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러므로 내적 실행 모델은 초기에 생성된 것일수록 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좀 더 명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

|   |
|---|
| <b>인지적 표상 수준</b><br>애착 · 애착 대상 · 애착 대상의 가용성에 관한 서술적, 명시적 지식 |
| <b>감각-운동, 절차적 수준</b><br>행동 전략에 관한 절차적 지식; 암묵적, 정서적 모델       |
| <b>초기 애착 체계 수준</b><br>기본적 애착 행동, 초기 애착 모듈, 반사적 애착           |

그림 1.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애착 체계의 조직화 수준 (Spangler & Zimmermann, 1999)

Bowlby는 한 개인이 자동성(automaticity)의 정도가 다른 여러 개의 내적 실행 모델을 가질 수 있으며, 실행 모델들은 보편성, 복잡성, 의식적 접근성의 정도가 다양한 하나의 망(network)이라고 보았고, 이에 따르면 개인이 직면한 상황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실행 모델이 작동될 수 있다(Maier, Bernier et al., 2004에서 재인용).

#### 2차원-4범주 애착 모델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Bowlby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자기보고 방식의 질문지(관계 질문지; Relationship Questionnaire; RQ)와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여, 자기에 대한 내적 모델과 타인에 대한 내적 모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2차원에 따라 애착을 4가지 범주로 나누고자 하였다. 이들은 그림 2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안정형은 자기 긍정-타인 긍정, 거부형은 자기 긍정-타인 부정, 집착형은 자기 부정-타인 긍정, 두려움형은 자기 부정-타인 부정적인 실행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모델과 타인 모델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낮거나 높은 수준과도 상응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60개의 애착 척도(323문항)를 요인 분석하여 18개의 애착불안 하위척도와 18개의 애착회피 하위척도를 가진 새로운 질문지(친밀 관계 경험 질문지;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를 만들었다. 연구자들은 애착을 범주로 나누

|                |              | 자기모델(애착불안)                                      |  |
|----------------|--------------|---|--|
|                |              | 긍정(Low)   | 부정(High)   |
| 타인모델<br>(애착회피) | 긍정<br>(Low)  | <b>안정형<br/>(secure)</b><br>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고 자율적    | <b>집착형<br/>(preoccupied)</b><br>관계에 집착             |
|                | 부정<br>(High) | <b>거부형<br/>(dismissing)</b><br>친밀함을 거부하고, 반-의존적 | <b>두려움형<br/>(fearful)</b><br>친밀함을 두려워함<br>사회적으로 회피 |

그림 2.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 애착 모델

는 것보다 차원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하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특징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애착불안은 자신이 사랑이나 애정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부정적 자기모델과 관련이 있고,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집착을 반영한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불안한 개인들은 그들을 상대적으로 독립성과 자신감의 수준이 낮으며, 열등하고 쫓대 없다고 느낀다. 동시에 부정적인 자기모델을 억누르고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어적 반응을 나타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반면 애착회피는 타인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 타인모델과 관련이 있고, 친밀함이나 의존을 피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즉, 만성적으로 회피적인 개인들은 스스로를 덜 온화하고, 덜 따뜻하며,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내에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동기화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타인모델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애착 체계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Shaver, Papalia et al., 1996).

### 주관적 안녕감

전통적으로 안녕감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중요했던 것은 질병이나 고통의 부재였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인 안녕감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살펴보는 것이 어려웠다(Diener, 1994). 하지만 Diener가 주관적 안녕감을 소개하며 낮은 수준의 부정정서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적정서와 개인의 삶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전반적인 판단이 삶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었

조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의 안녕감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인 반응으로 개념화되는 주관적 안녕감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진다(Diener, 1984). 첫 번째는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주관적 안녕감을 정의하는 데 있어 건강이나 돈, 편안함과 같은 객관적인 조건들은 고려되지 않는다(Kammann, 1983).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된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기준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는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측정을 한다는 점이다. 즉,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때에는 특정 영역에서의 정서 혹은 만족보다는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에 초점을 맞춘다. 초기의 안녕감에 대한 모델은 성인에게 맞추어 발전해왔으나(Diener, 1994), 8세 이상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Gilman & Huebner, 1997).

주관적 안녕감은 정적정서, 부적정서, 그리고 삶의 만족도라는 3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Andrews & Withey, 1976; Diener, 2000에서 재인용),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요소는 현재의 정서적, 감정적 측면을 반영하고,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인지적-판단적 평가를 반영한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따라서 많은 측정도구들은 안녕감의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는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모두 측정하고, 삶의 만족도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얻어 왔다.”와 같은 문항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다(Diener, 2000).

### 연구문제

1. 암묵적 애착, 명시적 애착,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암묵적 연합검사의 잠재 반응시간은 제시되는 연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성별에 따라 암묵적 애착, 명시적 애착은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상대적 설명력을 가지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3학년의 남녀 중학생 207명이었다. 연구 대상들은 서울에 위치한 D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33명 및 3학년 35명, 학원을 통하여 모집된 23명과 실험참가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모집된 1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설문지의 답변이 불성실하였거나 암묵적 검사의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33명이 제외되었고, 최종 분석에는 174명(84.1%)만 포함되었다.

174명의 연구 대상 가운데 남학생은 76명(43.7%), 여학생은 98명(56.3%)이었고, 평균 연령은 남학생이 14.80세( $SD=0.88$ ), 여학생이

14.77세( $SD=0.83$ )로, 전체 평균 연령은 14.78세( $SD=0.85$ )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86명(49.4%), 2학년이 40명(23.0%), 3학년이 48명(27.6%)으로 1학년이 가장 많았다. 성적은 80.4%가 중·상 수준이었고, 부모의 교육 수준도 고등학교 이상(부 97.7%, 모 97.1%)이 대부분이었다. 소득 수준과 가정 분위기도 각각 94.3%, 96.6%이 보통 이상으로 보고하였고, 부모 모두 함께 사는 가정이 88.5%이었다. 이처럼 성적,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소득 수준 및 분위기, 가정의 형태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들은 전체 인구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측정도구

#### 암묵적 애착

암묵적 수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Greenwald 등(1998)이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를 사용한 컴퓨터 실험을 시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IAT는 Millisecond사(www.millisecond.com)에서 제공하는 Inquisit 3.0 프로그램과 Greenwald 등이 제작한 IAT 스크립트의 2005년 버전을 본 연구에 적절한 단어로 수정한 것으로 실시하였다. IAT는 특정 대상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분화된 표적 자극과 긍정적/부정적과 같은 속성 자극을 연합시키는 과제로,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쌍일수록 더 빠르게 응답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이 때, 대상과 관련되는 단어들 이 표적 자극에 사용되고, 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단어들 이 속성 자극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자기’라는 표적 자극과 ‘안정’이라는 속성

자극을 연합하는 잠재 반응시간이 ‘타인’과 ‘안정’을 연합시키는 잠재 반응시간보다 빠르다면, 타인보다는 자기를 더 안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어머니와 관련된 암묵적 애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 IAT와 어머니 IAT라는 두 가지 IAT를 실시하였다. 이 때 사용한 IAT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 Brennan 등(1998)의 2차원-4범주 애착모델을 기초로 하여 낭만적 관계에서의 애착을 알아보고자 Veletanlic(2007)이 사용한 자기 IAT와 타인 IAT를 수정하여 어머니-자녀 관계에서의 애착을 측정하는 Ren 등(2011)의 자기 IAT와 타인 IAT를 한국어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시행 절차는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Veletanlic(2007)은 IAT가 한 번에 한 가지 차원만 측정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애착의 두 가지 차원인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을 분리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자기모델(애착불안)은 자기 IAT로, 특정 타인에 대해 접촉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타인모델(애착회피)은 타인 IAT로 측정하게 된

다. Veletanlic이나 Ren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 IAT에서는 표적 자극으로 자기 관련 단어 및 타인 관련 단어를 사용하였고, 속성 자극에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감정(felt-lovability)’과 관련된 단어 및 그와 반대되는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타인 IAT의 속성 자극은 연인/어머니 관련 단어 및 타인 관련 단어였으며, 표적 자극은 ‘가용하다고 느끼는 감정(felt-availability)’과 관련된 단어 및 그와 반대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자기 IAT와 타인 IAT의 속성 자극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바꾸는 과정에서 ‘felt-lovability’와 ‘felt-availability’라는 속성 자극 범주명과 이에 속하는 단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 Brennan 등(1998)의 모델에서 제안한 불안과 회피라는 단어를 속성 자극 범주로 사용하고, 각 속성에 해당되는 적절한 단어들을 탐색하여 예비검사를 한 뒤, 속성별로 단어를 5개씩 선택하여 사용하였다(표 2).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IAT를 어머니 IAT로 그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Veletanlic(2007)이나 Ren 등(2011)은 타인모델을

표 1. 자기(어머니) IAT의 시행 절차

| 단계 | 시행횟수 | 기능 | 왼쪽 반응키에 할당된 항목 (D 키) | 오른쪽 반응키에 할당된 항목 (K 키) |
|----|------|----|----------------------|-----------------------|
| 1  | 20   | 연습 | 자기(어머니) 단어           | 타인 단어                 |
| 2  | 20   | 연습 | 안정(접촉) 단어            | 불안정(회피) 단어            |
| 3  | 20   | 연습 | 안정(접촉) 단어+자기(어머니) 단어 | 불안정(회피) 단어+타인 단어      |
| 4  | 40   | 실전 | 안정(접촉) 단어+자기(어머니) 단어 | 불안정(회피) 단어+타인 단어      |
| 5  | 20   | 연습 | 타인 단어                | 자기(어머니) 단어            |
| 6  | 20   | 연습 | 안정(접촉) 단어+타인 단어      | 불안정(회피) 단어+자기(어머니) 단어 |
| 7  | 40   | 실전 | 안정(접촉) 단어+타인 단어      | 불안정(회피) 단어+자기(어머니) 단어 |

표 2. 자기 IAT와 어머니 IAT의 표적 자극 및 속성 자극

|          |         |     |                                 |
|----------|---------|-----|---------------------------------|
| 표적<br>자극 | 자기 IAT  | 자기  | 나, 본인, 자기, 자신, 내 것              |
|          |         | 타인  | 그들, 남, 상대방, 타인, 낯선 이            |
|          | 어머니 IAT | 어머니 | 어머니, 엄마, 모(母), 어머님, 모성애         |
|          |         | 타인  | 그들, 남, 상대방, 타인, 낯선 이            |
| 속성<br>자극 | 자기 IAT  | 안정  | 안정되다, 편안하다, 든든하다, 안심하다, 믿을 수 있다 |
|          |         | 불안정 |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불편하다, 의심스럽다   |
|          | 어머니 IAT | 접촉  | 접촉하다, 다가가다, 친밀하다, 가깝다, 반갑다      |
|          |         | 회피  | 회피하다, 피하다, 거북하다, 멀다, 떠나다        |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타인 IAT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명의 중요한 타인들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어머니를 다른 타인들과 비교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머니 IAT라는 이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IAT를 통하여 측정된 암묵적 태도는 Greenwald 등(2003)이 고안한 점수화 절차를 통하여 D 점수를 계산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 D 점수는 표 1의 3, 4단계와 6, 7단계의 평균 잠재 반응시간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으로, D 점수가 0보다 클수록 자기(어머니)에 대하여 안정(접촉)된다고 느끼고, 0보다 작으면 자기(어머니)에 대하여 불안정(회피)하다고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명시적 애착

명시적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1998)의 친밀 관계 경험 질문지(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scale; EC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애착 척도들을 요인 분석하여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 버림받는 것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 의존과 자기 노출에 대한 불편함)라

는 2가지의 애착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황경옥(2001)이 변안한 것을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권연진(201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애착불안 하위차원 18문항과 애착회피 하위차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7점)로 평점하며, 각 하위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점수의 범위는 36-252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전체 문항의 Cronbach  $\alpha$ 는 각각 .89와 .82, .88이었다.

###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7점)로 평점한다. 점수 범위는 5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삶의 만

측도가 높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소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의 정적정서 및 부정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Watson 등의 원척도에서는 정적정서와 부정적정서가 모두 10문항이었으나, 한국판 PANAS 척도에서는 원척도의 정적정서에 해당하는 '기민한(alert)'을 부정적정서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 '기민한'을 'alert'의 사전적 의미인 '맑고 머리가 깨어 있는 듯한 초롱초롱한 기분'으로 설명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민한'을 원척도와 동일하게 정적정서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정적정서가 .79, 부정정서가 .87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2012년 3월과 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피험자들은 애착에 대한 2세트의 IAT 검사와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질문지를 수행하였다. 학교 상황에서는 교내 컴퓨터실에서 집단으로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17인치 삼성 노트북 2~3대를 가지고 검사자와 피험자가 1:2, 혹은 1:3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 때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다. 애착 질문지와 주관적 안녕감 질문지를 우선 작성하였고, 애착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사람', 혹은 '상대방'이라는 단어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 작성이 끝난 후에는 IAT 검사의 실시 방법과 주의 사항을 듣고 자기 IAT와 어머니 IAT를 실시하였다. 자기 IAT와 어머니 IAT의 순서는 피험자마다 무선적으로 배정하여, 실험에 있어 순서효과나 연습효과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전체 실험 시간은 설문지 작성이 10~15분, IAT 실험이 각 10~15분으로 총 30~45분 정도 소요되었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정보와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알아보았다. 각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암목적 애착, 명시적 애착,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의 점수에서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검증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제시되는 IAT의 조건에 따라 암목적 연합 검사에서 나타나는 잠재 반응시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셋째, 주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명시적 애착과 암목적 애착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변인의 성차도 함께 알아보았다.

####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각 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검증 *t*-test를 실시하였다. 애착관련 변인들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적정서( $t=2.31(172), p<.05$ )와 삶의 만족도( $t=1.92(171.61), p<.10$ )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 모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암묵적 연합 검사의 잠재 반응시간에서의 차이 검증**

각 IAT에서 긍정적 자기모델 및 타인모델과 일치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조건들 사이의 평균 잠재 반응시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에서 자기 IAT에서 일치 조건의 평균 잠재 반응시간이 불일치조건의 평균 잠재 반응시간보다 유의하게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남  $t=-10.10(75), p<.001$ , 여

$t=-3.64(97), p<.001$ ). 어머니 IAT에서도 긍정적 타인모델과 일치하는 어머니-접촉/타인-회피 조건의 평균 잠재 반응시간이 어머니-회피/타인-접촉 조건의 평균 잠재 반응시간보다 유의미하게 더 빠르게 나타났다(남  $t=-7.44(75), p<.001$ , 여  $t=-4.26, p<.001$ ).

**암묵적 애착, 명시적 애착, 주관적 안녕감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암묵적 애착, 명시적 애착,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암묵적 애착은 IAT의 *D* 점수로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의 자기 IAT와 어머니 IAT의 점수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여학생에게서는 두 가지 IAT가 약한 정도로만 관련이 있었다(남  $r=.32, p<.01$ , 여  $r=.18, p<.10$ ). 또한 남학생의 자기 IAT는 삶

표 3. 남녀 집단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 암묵적 애착           |         | 명시적 애착 |         | 주관적 안녕감 |         |                   |
|----|------------------|---------|--------|---------|---------|---------|-------------------|
|    | IAT <i>D</i> 점수  |         | ECR    |         | PANAS   |         | SWLS              |
|    | 1.               | 2.      | 3.     | 4.      | 5.      | 6.      | 7.                |
|    | 자기 IAT           | 어머니 IAT | 애착불안   | 애착회피    | 정적정서    | 부적정서    | 삶의 만족도            |
| 1. | -                | .32**   | -.01   | -.03    | -.06    | -.11    | .25*              |
| 2. | .18 <sup>†</sup> | -       | -.10   | -.11    | .10     | -.02    | .11               |
| 3. | -.01             | -.16    | -      | .27*    | -.29**  | .53***  | -.22 <sup>†</sup> |
| 4. | -.03             | .01     | .26*   | -       | -.37*** | .34**   | -.29*             |
| 5. | -.21*            | .07     | -.11   | -.36*** | -       | .00     | .39***            |
| 6. | -.01             | -.13    | .45*** | .38***  | .14     | -       | -.36***           |
| 7. | .02              | .09     | -.24*  | -.42*** | .40***  | -.41*** | -                 |

주. 오른쪽 위: 남자( $n=76$ ) / 왼쪽 아래: 여자( $n=98$ ) / <sup>†</sup>  $p<.10$ , \* $p<.05$ , \*\* $p<.01$ , \*\*\* $p<.001$

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r=.25, p<.05$ ), 여학생의 자기 IAT 점수는 정적정서와 부적 상관이었다( $r=-.21, p<.05$ ).

여학생의 경우, 애착불안과 정적정서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명시적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사이에서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남학생은 모든 명시적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은 유의하게 상관이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명시적 애착과 암묵적 애착의 상대적 설명력과 성차**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측정된 명시적 애착과 자기 IAT, 어머니 IAT의 D 점수로 측정된 암묵적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의 세 가지 하위요소인 정적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상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1단계에 투입

한 뒤, 2단계에 자기 IAT와 어머니 IAT의 D 점수를 입력하였다. 종속변수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이었다. 상관분석에서 성차가 나타나, 회귀분석에서도 남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적정서.** 정적정서에 미치는 암묵적 및 명시적 애착의 설명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명시적 애착척도인 ECR로 측정된 애착회피가 정적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beta=-.31, p<.05$ , 여  $\beta=-.37, p<.001$ ).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명시적 애착변인들의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자기 IAT가 정적정서( $\beta=-.25, p<.05$ )에 대한 추가적인 7%의 설명력을 보였다( $F(4, 97)=5.63, p<.001$ ). 즉, 남녀 모두 명시적인 애착회피의 수준이 낮을 때 긍정적인 정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자신에 대해 안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명시

표 4.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기 IAT, 어머니 IAT의 정적정서에 대한 설명력

| 변인           | 남자, 정적정서 (n=76) |      |                   |        |      |                   | 여자, 정적정서 (n=98) |      |         |         |      |         |
|--------------|-----------------|------|-------------------|--------|------|-------------------|-----------------|------|---------|---------|------|---------|
|              | 1단계             |      |                   | 2단계    |      |                   | 1단계             |      |         | 2단계     |      |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 애착불안         | -0.14           | 0.07 | -.21 <sup>†</sup> | -0.14  | 0.07 | -.21 <sup>†</sup> | -0.01           | 0.07 | -.01    | 0.01    | 0.07 | -.01    |
| 애착회피         | -0.31           | 0.11 | -.31*             | -0.30  | 0.11 | -.31*             | -0.30           | 0.08 | -.36*** | -0.31   | 0.08 | -.37*** |
| 자기 IAT       |                 |      |                   | -0.20  | 0.24 | -.09              |                 |      |         | -0.58   | 0.22 | -.25*   |
| 어머니 IAT      |                 |      |                   | -0.14  | 0.21 | -.07              |                 |      |         | 0.27    | 0.22 | .12     |
| $R^2$        | .18             |      |                   | .19    |      |                   | .13             |      |         | .20     |      |         |
| $\Delta R^2$ |                 |      |                   | .01    |      |                   |                 |      |         | .07     |      |         |
| F            | 7.78***         |      |                   | 4.05** |      |                   | 7.21***         |      |         | 5.63*** |      |         |

†  $p<.10$ , \* $p<.05$ , \*\* $p<.01$ , \*\*\* $p<.001$

적으로 보고하는 정적정서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서.** 명시적 애착과 암묵적 애착의 부적정서에 대한 상대적인 설명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명시적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부적정서를 예측하였다. 성별에 따라 알아보면, 남학생의 경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부적정서에 대하여 32%의 설명력을[F(2, 75)=17.27,  $p<.001$ ], 여학생의 경우는 28%의 설명력을 가졌다[F(2, 97)=18.47,  $p<.001$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애착불안(남  $\beta=.48$ ,  $p<.001$ , 여  $\beta$

표 5.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기 IAT, 어머니 IAT의 부적정서에 대한 설명력

| 변인           | 남자, 정적정서 (n=76) |      |         |         |      |         | 여자, 정적정서 (n=98) |      |         |         |      |         |
|--------------|-----------------|------|---------|---------|------|---------|-----------------|------|---------|---------|------|---------|
|              | 1단계             |      |         | 2단계     |      |         | 1단계             |      |         | 2단계     |      |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 애착불안         | 0.36            | 0.08 | .47***  | 0.37    | 0.08 | .48***  | 0.31            | 0.07 | .39***  | 0.30    | 0.07 | .37***  |
| 애착회피         | 0.25            | 0.12 | .22*    | 0.26    | 0.12 | .22*    | 0.27            | 0.08 | .28*    | 0.27    | 0.09 | .29*    |
| 자기 IAT       |                 |      |         | -0.34   | 0.26 | -.13    |                 |      |         | 0.06    | 0.23 | .02     |
| 어머니 IAT      |                 |      |         | 0.20    | 0.22 | .09     |                 |      |         | -0.21   | 0.23 | -.08    |
| $R^2$        | .32             |      |         | .34     |      |         | .28             |      |         | .29     |      |         |
| $\Delta R^2$ |                 |      |         | .02     |      |         |                 |      |         | .01     |      |         |
| F            | 17.27***        |      |         | 9.13*** |      |         | 18.47***        |      |         | 9.32*** |      |         |

\* $p<.05$ , \*\*\* $p<.001$

표 6.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기 IAT, 어머니 IAT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

| 변인           | 남자, 정적정서 (n=76) |      |         |       |      |         | 여자, 정적정서 (n=98) |      |         |         |      |         |
|--------------|-----------------|------|---------|-------|------|---------|-----------------|------|---------|---------|------|---------|
|              | 1단계             |      |         | 2단계   |      |         | 1단계             |      |         | 2단계     |      |         |
|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B       | SE   | $\beta$ |
| 애착불안         | -0.18           | 0.14 | -.15    | -0.18 | 0.13 | -.15    | -0.21           | 0.15 | -.14    | -0.19   | 0.15 | -.12    |
| 애착회피         | -0.44           | 0.20 | -.25*   | -0.43 | 0.20 | -.25*   | -0.67           | 0.17 | -.38*** | -0.69   | 0.17 | -.39*** |
| 자기 IAT       |                 |      |         | 0.93  | 0.44 | .25*    |                 |      |         | -0.03   | 0.46 | -.01    |
| 어머니 IAT      |                 |      |         | -0.02 | 0.38 | -.01    |                 |      |         | -0.34   | 0.46 | .07     |
| $R^2$        | 0.11            |      |         | 0.17  |      |         | 0.19            |      |         | 0.20    |      |         |
| $\Delta R^2$ |                 |      |         | .06   |      |         |                 |      |         | .01     |      |         |
| F            | 4.34*           |      |         | 3.51* |      |         | 11.35***        |      |         | 5.72*** |      |         |

\* $p<.05$ , \*\*\* $p<.001$

=.37,  $p < .001$ )이 애착회피(남  $\beta = .22$ ,  $p < .05$ , 여  $\beta = .29$ ,  $p < .5$ )보다 부정정서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암묵적 애착은 부정정서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명시적인 불안수준과 회피수준이 높을수록 명시적으로 부정정서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명시적 애착과 암묵적 애착의 설명력의 성차를 알아본 분석의 결과는 표 6에 보고되었다. 애착불안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애착회피는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임이 드러났다(남  $\beta = .25$ ,  $p < .05$ , 여  $\beta = .39$ ,  $p < .001$ ). 또한 남학생에 있어 자기 IAT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으나( $\beta = .25$ ,  $p < .05$ ), 여학생에게서는 어떠한 설명력도 가지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명시적 및 암묵적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에 따른 성차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암묵적 애착 및 명시적 애착의 하위 변인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인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에서는 남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적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적정

서를 보고하였으나 부정정서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레바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Ayyash-Abdo와 Alamuddin(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Koo, Ric와 Park(2004)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정적정서를 더 적게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Koo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들이 부정정서 또한 더 많이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Heubner와 Dew(1996)나 고영남(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인지적 요소인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조명한, 김정오와 권석만(1994), 차경호(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정적정서 수준이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적게 보고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사춘기 변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 남학생들은 몸집이 커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대개 사춘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원치 않는 몸매로써의 신체적 변화나 2차 성징과 같은 사춘기적 변화가 여학생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Petersen & Taylor, 1980; 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에서 재인용). 즉, 사춘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로 인하여 여학생들이 덜 행복하고 삶에 대해서도 더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둘째로, 청소년 초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일상을 보고하고 (Compas, Davis, & Forsythe, 1985), 더 높은 수준

의 우울한 증상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의 증가는 더 많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다(Ge, Conger, & Elder, 1996). 특히 여학생들은 친교적 성향이 강하여 남학생들보다 대인관계를 더 중시하고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Maccoby, 199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여학생들의 삶을 덜 만족스럽고 덜 정적으로 느꼈던 것은, 실험을 실시한 3~4월이 새 학기였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여학생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 암묵적 연합 검사의 잠재 반응시간

암묵적 연합 검사의 잠재 반응시간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IAT에서는 자기와 불안정 속성, 타인과 안정 속성이 연합되었을 때보다 긍정적 자기모델과 상응하는 자기와 안정속성, 타인과 불안정 속성이 연합된 쌍일 때 잠재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더 빨랐다. 어머니 IAT에서도 긍정적 타인모델과 일치하는 어머니와 접촉 속성, 타인과 회피 속성이 짝지어졌을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잠재 반응시간이 더 빨랐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애착 IAT들이 표적 자극(자기/타인, 어머니/타인)과 속성 자극(안정/불안정, 접촉/회피)의 연합된 쌍을 분류할 수 있는 범주로 나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IAT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IAT와 어머니 IAT로 구성된 애착 IAT도 조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Nosek, Greenwald와 Banaji(2007)는 잠재 반응

시간으로 과제가 얼마나 분류하기 쉬웠는지 알 수 있다고 보았는데, 잠재 반응시간이 빠를수록 더 강하게 연합된 것이고, 연합이 강하게 된 과제일수록 더 분류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과 안정적인 속성을 연합시키고 있고, 어머니와 접촉 관련 속성을 더 강하게 연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을 안정적으로, 어머니를 접촉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과 성차

암묵적 연합 검사로 측정된 암묵적 애착과 자기보고 질문지로 측정된 명시적 애착,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암묵적 애착과 명시적 애착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시적 자기보고와 암묵적 검사로 측정된 태도들 사이에서는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의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만, 태도에 따라 약한 상관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메타 분석 결과를 지지한다(Nosek, 2007). 또한 어머니 IAT와 애착회피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접근과 회피에 대한 IAT에서 명시적-암묵적 검사의 상관값이  $r=.13$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Nosek, 2005).

애착을 측정하는 암묵적 검사와 명시적 검사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두 측정도구가 서로 다른 애착의 차원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IAT는 자동적이고 암묵적 수준에서 애착을 측정하므로, 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무의식적 애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ECR은 어머니와의 최근 관계에 대해 묻고, 관계에 대한 참가자들

의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응답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IAT와 ECR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점화되는 애착의 내적 실행 모델의 자동성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IPPA와 AAI가 서로 다른 애착의 구조를 측정했다고 본 Maier 등(2004)의 연구 결과와도 그 논리가 일치한다.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정서가 독립적이고 직교적인 차원이라고 본 Bradburn(1969; Diener, 2000에서 재인용), Watson 등(198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애착 질문지로 측정된 명시적 애착 변인들과 주관적 안녕감 변인들 사이의 관계는 애착 불안과 정적정서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시적인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들(Allen et al., 2004; Hazan & Shaver, 1994)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와의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고영남(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면, IAT로 측정된 암묵적 애착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들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자기 IAT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여학생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학생의 자기 IAT는 정적정서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남학생에게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정계수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자기 IAT와 정적정서의 경우는  $r^2=.04$ , 남학생의 자기 IAT와 삶의 만족도의 경우는  $r^2=.06$ 으로 나타나 그 설명력은 각각 4%, 6%로 매우 작은 편이나, 성차가 나타났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회귀분석의 결과

와 일치한다.

###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명시적 애착과 암묵적 애착의 상대적 설명력과 성차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명시적인 애착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정적정서를 더 많이 보였다. 이 결과는 정적정서를 예측하는 데 있어 애착회피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고 보고한 Kankotan(2008)의 연구 결과나 안정 애착된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정적정서를 보인다고 한 다른 연구들에 의해 지지된다(Torquati & Raffaelli, 2004). 이는 어머니와의 안정적 애착이 정적정서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본 고영남(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Mikulincer와 Shaver(2005)와 Watson 등(1998)의 연구에 의해서도 해석해볼 수 있다. Mikulincer와 Shaver에 의하면 회피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기를 피하는 것을 의미하고, Watson 등은 정적정서가 높다는 것은 즐거운 환경에 참여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 덜 참여하고자하는 경향이 강한 회피적인 사람들은 정적정서를 덜 보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적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명시적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부정적인 정서를 더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 거절이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차원이므로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항상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느낀다고 본 Bartz와 Lydon(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은 이들은 애착회피가 높은 개인들과는 반대로, 관계

를 추구하고 위협과 관련된 단서에 민감하기 때문에 늘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과민한 애착체계 활성화는 심리적인 고통으로 이어진다(Miculincer & Shaver,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안하거나 짜증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았을 때, 애착회피의 명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애착회피는 타인모델, 애착불안은 자기모델과 상응한다는 점에서 애착회피 수준이 낮은 것은 안정적인 애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정 애착에 해당하는 이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한 Nickerson과 Nagle(2004)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본 우리나라의 연구결과(고영남, 2008)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명시적인 애착을 통제된 후에도 암묵적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지 알아본 결과, IAT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던 Ren 등(2011)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에서 암묵적 애착의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암묵적으로 자신을 안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정적인 정서를 더 적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력은 남학생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의 경우 정적인 정서뿐 아니라 부적인 정서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더 솔직하고, 덜 회피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Bowlby(1973)는 애착 관계 내에서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노, 저항,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부적정서는 인간의 정상적인 정서이고, 이러한 정서는 파괴적이거나 그 정도가 과하지만 앓는다면 애착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부정적인 정서를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은 안정 애착의 특징이며(Kobak & Madsen, 2008), 슬프거나 무기력한 상황 혹은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상황과 같이, 애착 대상으로부터 편안함이나 보호 욕구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을 때 오히려 안정 애착이 더 발달한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Wienfield, Sroufe, Egeland, & Carlson, 2008). 따라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 중 어느 한 쪽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안정 애착의 특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사춘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여학생의 발달에 있어 관계의 중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Tolman, Impett, Tracy, & Michael, 2006) 여학생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우울한 기분을 더 많이 느끼며 자존감이 감소되기 쉽다(Brown & Gilligan, 1993).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신체나 외모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은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Frederickson & Roberts, 1997). 따라서 자신에 대한 안정적인 암묵적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학생들에게 부가되는 외적인 압력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슬픈 기분으로 대표되

는 낮은 정적정서를 보고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암묵적으로 자신에 대해 안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학생들이 관계 스트레스나 신체 및 외모 압력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된 낮은 수준의 정적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다른 발달 시기에 속하는 여성들이나 초기 청소년기의 남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정적정서를 덜 느끼게 되는데, 불안정적으로 애착되었거나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정들을 억제하지만,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를 억제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암묵적으로 자신을 안정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관계적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도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Richards, Crowe, Larson, & Swarr, 1998), 자신에 대한 암묵적인 안정적 태도와 상응하는 주체적인 특성도 더 강해진다(Helgeson, 1994). 따라서 암묵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남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남성의 모습을 띄게 되어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을 암묵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애착연구에서는 대부분 자기보고식 애착 질문지로만 애착을 측정하였고, 이는 자동성 수준이 다른 여러 개의 내적 실행 모델이 있다는 점을 고

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암묵적 애착 검사와 명시적 애착 질문지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명시적 애착 질문지의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암묵적 애착 검사가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를 예측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명시적 질문지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암묵적 애착의 존재와, IAT를 통해 암묵적 수준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애착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많은 애착 연구는 영·유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성인의 낭만적 애착에 초점을 맞추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애착 연구에 있어서도 중·고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거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발달 영역에서의 성차가 나타나고, 의식-무의식 분리가 완성되며, 정서적 긴장상태가 극대화되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시기에 해당하는 독특한 발달적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대한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내에서 성차를 알아보았다.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는 사춘기와 함께 여러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이고, 이 때 발생한 성차가 이후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볼 때(Rudolph, 2002) 이 시기의 성차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암묵적 애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변인에서 성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넷째,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주관적 안녕감의 3가지 하위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는 단일 질문지를 사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3가지 하위 변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 결과, 각 변인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들은 독립되어 있으며, 애착과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각 제한점과 관련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 사용된 단어들 중 일부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이 있었다. 예비검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생소한 단어들을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몇몇 학생들은 시행에 있어 어려움을 가졌다. IAT는 빠르고 자동적인 잠재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검사이므로, 청소년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잠재 반응시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성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IAT에 사용할 더 적절한 단어들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비록 분석에서 유의미한 학년차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일반적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없거나 약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청소년 중기에 접어들게 되면 청소년 초기(Man, 1991: Nickerson & Nagle,

2004에서 재인용)나 성인기(Petito & Cummins, 2000)보다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제안된다.

셋째, 아버지나 또래가 청소년의 행복이나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고통에 독특한 영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 측정하였고 어머니 IAT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버지와 친밀하게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고영남, 2008; Wenk, Hardesty, Morgan, & Blair, 1994)나, 또래와의 관계가 특히 여학생들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Rudolph, 2002)를 살펴볼 때, 후속 연구에서 아버지 및 또래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애착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특정 영역과 관련된 삶의 만족도를 알아볼 경우 더 흥미로운 결과가 산출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보고하였으나, 여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만족도를 더 느끼고 남학생들은 학업이나 학교와 관련된 만족도를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특정 영역과 관련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경우 성차에 있어 새로운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영남 (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6(2), 111-131.
- 권연진 (2010). 남녀 중학생의 애착차원, 공격성, 사회적 능력,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 공격적 피해집단과 비공격적 피해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예진 (2012). 중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하, 권세원 (2010).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3), 201-231.
- 유경자 (2005).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기영, 신영규, 은백린, 박상희, 독고영창 (2000). 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의 우울증. *소아과*, 43(2), 172-178.
-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47-162.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신형자 (2010). 아동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희천, 한소영, 양육석 (2009). IAT를 이용한 부모-자녀 관계 만족의 암묵적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369-396.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 193-216.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len, J. P., McElhaney, K. B., Kuperminc, G. P., & Jodl, K. M. (2004).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 security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6), 1792-180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yyash-Abdo, H., & Alamuddin, R. (2007).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youth in Leban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7(3), 265-284.
- Banaji, M. R. (2001). Implicit attitudes can be measured. In H. L. Roediger, I. N. Nairne, A. & M. Suprenant (Eds.), *The nature of remembering: Essays in honor of Robert G. Crowder* (pp.117-14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artz, J. A., & Lydon, J. E. (2004). Close relationships and the working self-concept: Implicit and explicit effects of priming attachment on agency and commun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1), 1389-1401.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Y: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Y: Guilford Press.
- Brown, C., & Gilligan, C. (1993). Meeting at the crossroads: Women's psychology and girls' development. *Feminism and Psychology*, 3(1), 11-35.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4), 1101-1111.
- Compas, B. E., Davis, G. E., & Forsythe, C. J. (1985). Characteristics of life events during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6), 677-69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 Frederickson, B. L., & Roberts, T-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Furman, W., & Wehner, E. A. (1994) Romantic views: Toward a theory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An annual book series, Vol. 6* (pp.168-195). CA: Sage Publications.
- Ge, X., Conger, R. D., & Elder, G. H. Jr. (1996). Coming of age too early: Pubertal influences on girls' vulnerability to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Development*, 67(6), 3386-3400.
- Gilman, R., & Huebner, E. S. (1997). Children's reports of their life satisfaction: Convergence across raters, time and response forma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8(3), 229-243.
- Gilman, R., & Huebner, E.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0),

- 192-205.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293-301.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Hazan, C., &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Psychological Theory*, 5(1), 1-22.
-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12-428.
- Huebner, E. S., & Dew, T. (1996). The interrelationships of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life satisfaction in an adolescent sam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2(2), 129-137.
- Kammann, R. (1983). Objective circumstances, life satisfactions, and sense of well-being: Consistencies across time and place. *New Zealand Journal of Psychology*, 12(1), 14-22.
- Kankotan, Z. Z. (2008). *The role of attachment dimensions, relationships status, and gender in th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of the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 Kobak, R., & Madsen, S. (2008). Disruptions in attachment bond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ntervention.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pp.23-47). NY: Guilford.
- Koo, J., Rie, J., & Park, K. (2004).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ffect and subjective well-being.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4(1), 268-270.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4), 513-520.
- Maier, M. A., Bernier, A., Pekrun, R., Zimmermann, P., & Grossmann, K. E. (2004). Attachment working models as unconscious structures: An experimental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2), 180-189.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5). Attachment security, compassion, and altruism. *Psychological Science*, 14(1), 34-38.

- Murphy, K., McKone, E., & Slee, J. (2003). Dissociations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memory in children: The role of strategic processing and the knowledge bas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4*(2), 124-165.
- Nickerson, A. B., & Nagle, R. J.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5-60.
- Nosek, B. A. (2005).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4*(4), 565-584.
- Nosek, B. A. (2007). Implicit-explicit relations. *Psychological Science, 16*(2), 65-69.
- Nosek, B. A., & Banaji, M. R. (2001). The go/no-go association task. *Social Cognition, 19*(6), 625-666.
- Nosek, B. A.,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7).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t age 7: A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review. In J. A. Bargh (Ed.), *Social psychology and the unconscious: The automaticity of higher mental processes* (pp.265-292). NY: Psychology Press.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Peterse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47-271.
- Petito, F., & Cummins, R. A. (2000). Quality of life in adolescence: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parenting style, and social support. *Behaviour Change, 17*(3), 196-207.
- Raja, N. S.,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en, Z., Wang, D., Yang, A., Li, M., & Higgins, L. T. (2011).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to mothers in a Chinese contex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9*(5), 701-712.
- Richards, M. H., Crowe, P. A., Larson, R., & Swarr, A. (1998). Developmental patterns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peer companionship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9*(1), 154-163.
- Richards, R., McGee, R., Williams, S. M., Welch, D., & Hancox, R. J. (2010). Adolescent screen time an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64*(3), 258-262.
- Rosenthal, N. L., & Kobak, R. (2010). Assessing adolescent's attachment hierarchies: Differences across developmental periods and associations with individual adapt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3), 678-706.
- Rudolph, K. D. (2002).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4), 3-13.
- Shaver, P. R., Papalia, D., Clark, C. L., Koski, L. R., Tidwell, M. C., & Nalbone, D. (1996). Androgyny and attachment security: Two

- related models of optimal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6), 582-597.
- Spangler, G., & Zimmermann, P. (1999).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adolescents: A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on internal working model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3), 270-290.
- Tolman, D. L., Impett, E. A., Tracy, A. J., & Michael, A. (2006). Looking good, sounding good: Femininity ideology and adolescent girls' mental healt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1), 85-95.
- Torquati, J. C., & Raffaelli, M. (2004). Daily experiences of emotions and social contexts of securely and insecurely attached young adul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6), 740-758.
- Veletanlic, M. (2007). *Assessing attachment models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Unpublished manuscript. Institutionen for beteendevetenskap, Hogskolan Kristianstad.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enk, D. A., Hardesty, C. L., Morgan, C. S., & Blair, S. L. (1994). The influence of parental involvement on the well-being of son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1), 229-234
- Wienfield, N. S.,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caregiver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aspects of security.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pp.78-101). NY: Guilford.
- Wilson, T. D., Lindsey, S., & Schooler, T. Y. (2000). A model of dual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07(1), 101-126.

1 차원고접수 : 2012. 10. 22.

심사통과접수 : 2012. 12. 07.

최종원고접수 : 2012. 12. 13.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difference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attachment**

**Mi Joo Kim**

**Hee 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1) how the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differ according to gender, and (2) the different contribution of implicit and explicit attachment to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74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positive affect and life satisfaction, while no gender difference in implicit, explicit attachment and negative affect. Second, the words used in the two sets of Implicit Association Test were classifiable and most students had more positive implicit attitudes of the self and their mother than of other people.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xplicit attachment and thre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across gender,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implicit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Fourth, explicit attachment predicted three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both boys and girls. In contrast, implicit attachment explained subjective well-being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subjective well-being, middle school students*